

휘남현

# 라이브 방송으로 겨울 관광 매력 전국에 알려



최근 '고향 대변인·문화관광 전파자' 문명 실천 주제 행사가 휘남현 서거항(西夾荒) 생태관광휴양지에서 진행되었다. 10여명의 현지 읍미디어 '휘남추천관'(辉南推荐官)들이 공식 플랫폼과 협력하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네티즌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달했다. 소후넷(搜狐网), '애상휘남'(爱尚辉南) 등 다양한 채널들이 동시에 생방송을 진행하며 휘남의 매력을 더 많은 외지 관광객들에게 알렸다.

행사장에서 '추천관'들은 서거항의 대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체험하며 현지의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다. 그들은 스케이트와 썰매를 직접 타보고 독특하게 지어진 눈집에서 난로 앞에 모여앉아 차를 마시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가 하면 구불구불한 눈동굴을 탐험하고 가마솥리리와 인삼만찬 등 현지 음식을 맛보며 동북의 깊은 명절 정

취를 느꼈다. 밤이 되자 타오르는 모닥불이 추운 겨울밤을 녹여주었다. 참석자들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길림 휘남 서거항에서 명절

보내기'의 즐거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눈 덮인 풍경, 민속공연, 특색음식 등 생생한 순간



## 집안시 음력설 문화주간 주제 활동 순조롭게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대중문화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길림성당위 선전부와 길림성문명판공실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성급 시범 활동 주희의장인 집안시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우리의 명절·기쁨 가득한 중국 설날'을 주제로 한 음력설 문화주간 주제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시, 향진(가두), 촌(사회구역)에서 함께한 문화 행사로 전통 민속 요소들을 활용하여 참석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무형문화유산 체험, 공연, 오락, 전통 음식 시식 등으로 다

양하게 마련되었다.

2월 2일, 집안시새시대문명실천중심에서는 '설 무형문화유산 수공공방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통 종이 공예, 춘련 쓰기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한데 모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인들이 참가자들에게 기술을 직접 전수하고 서예애호가들이 춘련을 직접 써서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참가자들은 직접 춘련을 쓰는 등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월 3일, '설맞이 체험 게임의 날'

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즐거운 만남의 장이 되었다. '신년 복권 뽑기'를 통해 새해 소원을 빌고 '재물 굴리기' 게임으로 협동심을 발휘했는데 특히 '복(福) 고리 던지기' 부스가 인기 만점이었다. 참가자들이 표적을 향해 고리를 던져 성공할 때마다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북적이 는 행사장은 응원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고 참가자들은 나이와 지역을 떠나 게임을 통해 친해지고 돈독한 정을 다졌다.

2월 4일, 단결가두 조양사회구역 분회의장에서는 '복으로 가득한

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약 1만 명 되는 네티즌들이 "정말 명절 분위기가 난다", "서거항에서 년말을 보내고 싶다", "매트를 남겼다", "추천관"들은 관광지의 대표적인 경관을 중심으로 50여건의 관련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작 발표하여 서거항의 생태적 아름다움과 휘남의 문화적 깊이를 다각도로 보여주었다. 또한 행사에서는 신나는 게임과 년간 포인트 교환 행사도 진행되었다.

최근년간 서거항생태관광휴양지는 독특한 지역 특성과 생태환경 덕분에 여름에는 피서관광지로, 겨울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동북지역의 매력을 선물하고 있다. 또한 민속 전통 종이공예와 민속공연을 진행하고 독특한 숙소와 생태레스토랑 등 우수한 편의시설로 자연과 문화를 조화롭게 연결하고 있다.

오늘날 서거항휴양지는 휘남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주변 화산암지역의 입찰재배단지, 블루베리체험농장, 잣가공합작사 등과의 연결로 '휴양지 방문객 유치 + 지역 산업 소득 증대'의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휴양지의 인지도를 높이고 서거항의 생태적 매력, 전통의 멋, 산업 활력 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인삼요리를 맛보려 휘남으로'라는 구호를 널리 확산시켰다.

앞으로 휘남현은 혁신적인 선전 방식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분기별 현장 탐방과 년간 우수 평가 등을 통해 계절별 문화관광 주제에 맞춘 생방송을 기획하고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따뜻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선전 영상을 더 많이 제작하여 휘남 관광 선전 채널을 확대해나감으로써 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휘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부터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오건기자, 강박(姜博), 조사문(赵思文)



통화현 장터

먹거리·공연·문화체험까지 한자리에



2월 7일, 통화현에서 설맞이 장터(年货大集)가 활기차게 열렸다. 많은 주민들이 장터를 찾아 설맞이 준비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전통 민속 공연도 감상하면서 흥성한 명절 분위기를 연출했다. "싱싱한 갈치와 새우, 모두 품질이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지 산 버섯입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장터에 들어서니 상인들의 사구려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길 양쪽으로 다양한 매장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했다. 지역 특색이 담긴 음식과 독특한 간식, 신선한 수산물과 랭동식품, 장식품 등 다양한 명절 용품들이 눈길을 끌며 정겨운 명절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민들은 그 사이를 오가며 마음에 드는 상품을 정성껏 고르고 있었다.

"엄마, 저 당화(糖画) 사고 싶어요!" 한 아이의 쉼없는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진다. 아이들이 당화 매장 앞에 모여 장인의 숙련된 손놀림을 반짝이는 눈으로 지켜본다. 풀인 물엿이 돌판 우를 매끄럽게 흐르며 순식간에 생동감 넘치는 봉황 모양의 당화가 완성된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속 공연이 펼쳐지며 설맞이 장터에 문화적 풍미를 더했다. 곡예배우들은 전문 기술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사자탈을 쓴 배우들은 힘찬 북소리에 맞춰 기운차게 뛰어나다며 관중들에게 새해 축복을 전했다. 특히 전통 기법인 '불 뿜기'(吐火) 공

연은 장내 열기를 단숨에 끌어올리며 관객들의 끊임없는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이번 장터에 또 통화현 '제1서기대변' 전문판매구역이 마련된 가운데 여러 마을의 서기들이 지역 농특산품을 들고 참여하여 열정적인 지원을 보냈다. 김치, 옥수수, 술, 야채, 천연꿀 등 우수한 상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민생 혜택과 소비 촉진을 위해 통화현정부는 이번에 총 30만원 규모의 설맞이 상품권을 발행했다. 상품권은 미식, 오락,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소비자들은 설맞이 장터의 여러 매대를 물론 시내 지정 가맹점에서도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요해에 따르면 이번 장터에는 50여개 부스가 마련되었으며 실외미식구역, 랭동품구역, 백화점구역, 게임구역, 실내과일맛채소구역, '제1서기'판매구역 등 다양한 구역으로 구성되었다. 통화현의 근 20개 기업과 15개 향진에서 온 100여종의 특색 있는 설맞이 상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품목의 다양성과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다. 대중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련 부문은 또 약 100대의 저렴한 승차량을 조율하여 출행 수요를 충분히 보충했다.

/길림일보



휘남현

## 겨울철 곰보버섯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



최근 휘남현 조양진 마가령촌의 곰보버섯(羊肚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다가오는 설명절에 특별한 신선함을 더하고 있다.

마가령촌의 비닐하우스에서는 곰보버섯 따기가 한창이다. 갈색의 곰보버섯들이 부드러운 색깔과 진한 향을 뿜어내고 있는 가운데 수확의 기쁨에 얼굴마다 환한 미소가 퍼진 마을 주민들이 선별, 포장 작업에 분주하다.

"예전에는 겨울이면 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비닐하우스에서 곰보버섯을 따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이서 다니기도 편리하고 수입도 많아서 외지에 일하러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휘남현 마가령촌 주민 방랍해(庞立海)가 능숙하게 곰보버섯을 따며 전했다.

이 재배기지에서는 20여명 촌민이 일하고 있는데 수확 기간 동안 주민들의 월수입은 3,000원 이상에 달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크게 개선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가령촌의 곰보버섯재배지에는 총 3개의 현

대식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두차례 수확이 가능한 묘작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매차의 무당 생산량은 약 1,000근에 달하며 시장가격은 근당 약 120원, 연간 생산액은 16만원에 달한다. 예전에는 겨울 내내 방치되어있던 땅이 이제는 '수입 증대의 터밭'으로 변모한 것이다.

마가령촌당지부 서기 윤리휘(尹利辉)는 "저희가 재배한 곰보버섯은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일품이어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라고 전했다.

최근년간 휘남현은 자원 우세를 리용하여 곰보버섯 재배를 특색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합작사 + 기지 + 농가' 방식으로 산업의 표준화와 규모화 발전을 추진하고 균종 육성부터 논밭 관리, 판매 경로에 이르기까지의 완전한 산업사슬을 형성하여 향촌 진흥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길림일보



/오건기자, 진홍임(陈虹任), 신명(申明)

